

# ‘실상과 다른 오락가락 규정’에 전동킥보드 이용자 혼선

### 대다수 킥보드 이용자, 바뀐 도로교통법 규정 몰라 ‘자전거 도로’ 주행 허용 규정...도로 여건과 엇박자 “개인형 이동장치 특성 고려한 맞춤형 법안 필요”

“자전거 도로는 찾기 힘들고 차로 갓길 주행을 위험한데 어떻게 이용하죠?”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 도로에서도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 시행됐지만, 대다수 킥보드 이용자들은 바뀐 규정을 몰라 혼선을 빚었다.

일각선 도로 주행 여건과 제도간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11일 오후 광주 동구 한 대학가. 대학 캠퍼스 안팎 어디에서든 전동 킥보드 이용자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용자 대부분은 안전

모 착용·2인 이상 탑승금지·횡단보도 통행 금지 등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한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내리막길 도로 중앙을 달리다,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칠 뻔했다.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넘나드는 전동 킥보드를 발견한 어느 보행자는 함께 걷던 지인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조심해’라고 외치기도 했다.

나란히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남녀도 있었다. 횡단보도에선 신호에 맞춰 걸던 보행자



가 맞은 편 인도에서 달려오는 킥보드를 피하려 멈춰 서는 경우도 눈에 띄었다.

차량이 빠르게 달리는 차도와 자전거 도로가 없는 인도 사이에서 멈춰 서, 고개를 갸우뚱 하는 킥보드 이용자도 보였다.

한 킥보드 이용자는 ‘정해진 규정이 있는 줄 몰랐다. 인도로 천천히 가면

되지 않냐’고 반문했다.

최근 개인용 킥보드를 구매한 김모(14)군은 “인터넷으로 전동 킥보드를 구매한 뒤 안전 교육을 받은 적은 없다”며 “며칠 전 공원 인도에서 행인이 ‘여기서 타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줘 주행 관련 법 규정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과 도로 상황

이 맞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이모(18·여)양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라는 규정이 있지만, 사실 자전거 도로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후사경이 없어 뒤 차량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차도로 다니기엔 위험하다. 인도 내 주행을 위법 행위라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모르겠다.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박모(26)씨는 “오토바이·자전거를 근거로 법안을 맞추다 보니 규정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초이면 이용 연령 제한 등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다. 일부 이용자들은 ‘법이 곧 바뀔텐데 대중 타자’라는 단일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며 “개인형 이동수단 특성에 맞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에서 지난 3년간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관

련 통계가 집계된 지난 2017년에는 3건이었으나, 2018년 15건을 거쳐 지난해에는 18건까지 늘어났다.

이달 1일에는 20대 여성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치어 크게 다치는 사고도 있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최고시속 25km 미만, 중량 30kg 미만의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정, 만 13세 이상이면 탈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업체 사이 업무협약을 통해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은 원동기 면허를 보유한 만 16·17세부터 가능하다.

내년 초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운행이 가능토록 해 이용 연령 제한이 강화된다.

위반 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김미희기자



임시 병상 설치 공사 진행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3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13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 병상확보를 위한 컨테이너 임시 병상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 6년간 150회 출동 6명 구조...인명구조견 ‘강풍’ 은퇴

순천소방서는 인명구조견 강풍이 6년간의 현장 활동을 마무리하고 최근 순천소방서 산악119구조대에서 은퇴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2011년에 태어난 강풍(독일산세퍼트, 9살)은 산악·봉고·수색 등 19개 월간의 인명구조견 양성 교육을 마치고 순천소방서에 배치돼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6년 동안 전남 곳곳에서 조세훈 핸들러와 함께 산과 들을

누비며 살아있는 요구조자를 한명이라도 더 찾으려고 노력하며 도민의 생명보호에 큰 공을 세웠다.

강풍이는 지금까지 총 150회 현장 출동해 생존자 4명 구조, 사망자 2명 발견하였고 EBS, KBS 등 방송도 출연해 소방 활동사항을 홍보하는 등 많은 공을 세우고 이번 은퇴를 맞이했다.

강풍이는 은퇴식을 가진 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직 소방공무원인 위미



환씨의 가정의 새 식구로 분양될 예정 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조두순’ 집 앞서 소란 피운 BJ·시민 등 입건

### 조두순 탄 관용차량 파손 3명도 신원 특정...형사입건 예정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68)이 지난 12일 만기 출소한 가운데 그가 사는 곳으로 알려진 집 주변에서 다른 인터넷 방송 BJ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 BJ와 시민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출소한 조두순의 주거지 앞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폭행 및 주거침입미수 등)로 인터넷 방송 BJ와 시민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 BJ인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 50분께 다른 인터넷 방송 BJ가 조두순 집 앞에서 짜장면을 시켜먹고 이를 개인방송에 올리자 “왜 이런 것을 올리느냐”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BJ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 B씨는 같은 날 오후 8시 5분께 가스배관을 타고 조두순 집에 침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B씨가 연행되는 순찰차를 가로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전 안산준법지원센터 앞 도로상에서 조두순이 탄 관용차량을 파손한 시민 3명도 신원을 특정했으며, 이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공용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 출소일인 12일 오전 일부 시민들이 경기도 안산준법지원 센터를 나서 집으로 향하는 호송차량을 막고 있다.

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당시 조두순은 준법지원센터에서 1시간 가량 머물며 전자장치 부착 신고와 신정정보 등록절차를 진행했다.

경찰은 전날 오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 조두순이 안산준법지원 센터를 거쳐 오전 8시 55분께 안산 거주지로 복귀한 이후부터 혹시 모를 불상사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그 일대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상태다.

현재는 조두순 집 반경 50m 안으로 인터넷 방송 BJ들의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 술 취하면 노모 폭행 학대한 아들 집유

70대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정서적 학대 행위를 반복한 5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존속폭행지상·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3시 30분께 전남 한 지역 주거지에서 어머니 B(79)씨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순께 택시를 타고 귀가한 다음 B씨에게 택시 요금을 빌려오라고 협박하고, 같은 해 6월부터 8월 사이 B씨에게 폭언·협박을 일삼아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농작물 재배로 얻은 수입을 술·담배 구입 등 유흥비로 사용하고, B씨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유나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민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